도움 필요한 곳에 반드시 그들이 있었다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광주·전남 74년 선교의 교훈

문화·사고방식 등 철저한 同化
복지관·병원 운영 사회적 공헌

"성골롬반 외방선교회가 교황청의 뜻에 따라 젊은 사제 10명을 한국으로 파견한 지 채 일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 사제들을 파견하고 사제들의 생활과 선교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일랜드에 본부를 둔 골롬반회 선교잡지 '동방' 1934년 7월호에 실린 글이다. 대구교구 주교가 교황에게 요청해 전남지역에 선교사가 파견된 것은 74년전인 1933년 10월. 목포 산정동에 본원을 세우던 당시 광주·전남의 한국인 사제는 6명 뿐이었다.

이들이 봉헌한 광주·전남의 성당이 현재 24곳을 헤아리고, 200명 넘는 한국인 신부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천주교회사(史)의 관점에서 비약적 발전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장애인 시설인 엠마우스 복지관, 의료시설인 목포의 성골롬반 병원 등 사회적으로도 크고 작은 공헌을 해왔다.

초대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을 역임했던 현 하롤드 신부 역시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소속이었으며, 한국전쟁 때 목포 산정동 성당에서 인민군에게 체포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3명의 외국인 신부들도 이곳 소속이다. 이들은 1999년 국가유공자로 추서됐다. 70년 넘게 계속되는 조용하고도 강력한 선교의 비결은 무엇일까.

37년째 한국에서 생활 중인 오수성(본명 미카엘 오그레이디·63) 신부는 최근 광주시 서구 마륵동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광주회관에서 "다른 문화 속에도 하느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름 받은 그곳의 사람들과 최대한 동화되고자 했다"며 "한국에 도착해 처음으로 한 일이 6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우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현지인에게서 거부감을 떨쳐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같은 언어의 사용이라는 기본이 지켜진 것이다. 이 법칙은 이들이 처음 한국에 왔던 74년 전부터 지켜져오고 있다. 엠마우스 복지관을 설립한 천노엘(본명 노엘 오닐·74) 신부는 이미 광주의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유명인사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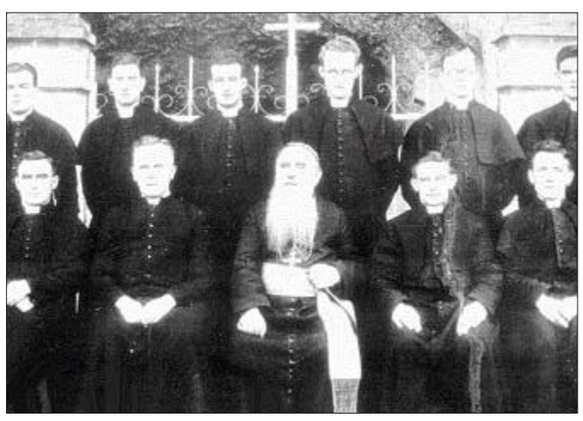
한 때 광주·전남에만 68명의 선교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천 신부를 포함한 7명의 신부들이 광주·전남을 지키고 있다. 이들은 시골 지역의 공소나, 병원 또는 나병 환자 마을에서 사목 활동을 하고 있다. 모두 환갑을 넘은 '노인'이지만, 열정은 젊은 시절과 크게 다를 게 없다.

매일 새벽 기상과 함께 기도하는 일은 물론이고, 그 흔한 자동차 없이 잘도 지낸다. 민수왕(본명 패트릭 머피·63) 신부는 "지금은 회관에 살면서 우리 선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하는 중"이라며 "내가 제일 어리다"고 너스레를 떤다. 환한 얼굴의 이들에게서 어쩌면 해외 선교의 모범 답안을 엿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무작정 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74년 전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그랬듯,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초대를 받아 그곳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시 서구 마륵동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광주회관 마당에서 노야곱·오수성·민수왕(오른쪽부터) 신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1933년 한국에 파견된 10명의 사제와 안세화(앞줄 가운데) 주교. 뒷줄 맨 왼쪽이 천주교 광주대교구 초대 교주장을 맡았던 현 하롤드 신부다.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제공〉

종교칼럼

이덕윤

사후돈망(事後頓忘)

긴 명절의 연휴를 마치고 모두 다시 본연의 일터로 돌아왔다. 쉬는 기간이 없이 현장을 지켰을 일터의 사람들도, 풍요롭게 여유 있는 연휴를 즐겼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똑같이 주어진 명절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 아쉬움도 있었을 것이며, 나름대로 소박한 행복의 기쁨도 많았을 것이다.

어느 교도님께서 며느리 이야기를 보따리로 풀어놓는다. 애지중지 키운 외동아들을 며느리에게 뺏겼다는 기분이란다. 명절이 돼도 미리 올 생각은 안 하고 준비를 다 해놓으면 나타나고, 출가외인이 시댁보다도 친정이 먼저며, 어렵게 키운 아들 생각하면 속상한 마음에 깊은 숨을 내려놓는다. 어디 이 가정만 그러할까.

요즘 유행하는 말에 3대 어리석은 여자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며느리를 딸이라고 우기는 여자. 둘째는 사위를 아들이라 우기는 여자. 셋째가 내 며느리와 결혼한 남자를 아직도 자기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여자란다. 세상이 변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을 유머로 풀었다 하지만 만고불변의 법칙에 가까운 고부간의 갈등을 말한 세 번째 항목에서 자신의 심신을 다 바쳐 키워낸 어머니들의 세대를 생각하니 마음이 찡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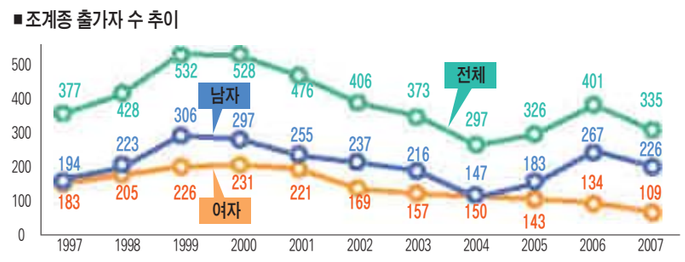
사실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원망과 섭섭함은 더 많은 법이다. 모두가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이나 사랑하는 방식이 다름에서 나오는 갈등인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법문 중 사후돈망(事後頓忘)이 있다.

어떠한 일을 지낸 뒤 바로 잊자는 것이다. 마음에 찌꺼기를 남기지 말자는 뜻으로 일을 한 뒤에는 반드시 잘 지워야 한다. 지우개로 온갖 낙서를 지울 수 있듯이 어떠한 일을 지낸 뒤 잘 지울 줄 아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정신건강이 좋은 사람이다. 두고두고 잔소리를 많이 하거나 감정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사후돈망이 안되기 때문이다. 가슴에 두고두고 묻어둘 사연들에 대하여도 묻어둘 것이 아니라 잊을 건 바로 잊어버리는 것이 잘 사는 사람일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섭섭한 일은 빨리 잊자는 것이다. 내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난 그리하지 말자는 교훈을 새겼으면 싶다. 마음도 쉬어야 한다. 마음을 비우고 본래 면목에 접목해 있으면 늘 새롭다.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자. 〈교무·원불교 소촌교당〉

여성 출가자 크게 줄었다

조계종 행자교육원 수료자 109명
올해 남성 출가자의 절반도 안돼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스님)의 여성 출가자 수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교육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33기 행자교육원을 수료한 여성 행자는 45명으로 남성 행자 119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지난 3월 제32기 수료자 64명을 합치면 올해 조계종을 통해 출가한 여성은 모두 109명. 남성은 226명이다.

지난 10년간 조계종 행자교육원 수료자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 출가자의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표〉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7년 출가한 여성은 183명으로 남성 194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후 ▲1998년 여성 205명 남성 223명 ▲1999년 여성 226명 남성 306명 ▲2000년 여성 231명 남성 297명 등으로 남녀 출가자가 동반해서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2001년부터 남성은 들쭉날쭉한 반면, 여성은 감소세가 확연해졌다. 지난해의 경우 여성 출가자 수가 134명으로, 남성(267명)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조계종 관계자는 "출가 인연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이런 추세는 사회 전반에서 여성의 권리와 경제력이 커지면서 출가의 계기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의 경우 출가자는 개별 사찰에서 5개월 정도 기본교육을 받은 뒤 3주 과정의 행자교육원을 수료해야 예비승(사미·사미니)의 자격을 얻는다. 이후 종립 동국대나 중앙승가대, 혹은 전통적인 강원 등에서 4년 정도 교육을 받으면 정식 승려인 비구나 비구니가 될 수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 월광교회 예비 부모학교 개설

내달 1일부터 5주간 임신 부부 등 대상

광주 월광교회는 다음달 1일부터 29일까지 5주간 일정으로 '제2기 예비 부모학교'를 개설한다.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 부모학교는 전문가들의 강의와 기독교 태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첫날인 1일에는 월광교회 김유수 목사의 개강 예배에 이어 유태식 하남산부인과 원장이 강사로 나서며 8일에는 이무석 전남대 의대 교수의 '스트레스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강의가 이어진다. 또 장인숙 늘푸른 소아과원장과 월광교회 정정미·반현숙·김효정 집사가 올바른 자녀 양육 등에 관해 강사로 나선다.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계속되며 회비는 부부 6만원, 개인 4만원이다. 장소 월광교회 선교센터 4층 비전 홀. 문의 010-6645-2065.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바지속의 마법~
땀먹는 "루스터팬츠"
루스터팬츠
숨쉬는 섬유와 분리통풍 설계가 제공하는 신선한 착용감!!!

올 여름은 역사상 가장 무더울 것이라고 "2007 기상학술 심포지움"에서 전망했다. 지구 온난화 (Global Warming)가 가속화 되고 엘니뇨 현상이 극성을 부리면 해수면과 지표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온 지구촌이 기록적인 무더위에 허덕이게 된다는 것이다.

회사원 조모(36세 남)씨는 하루 10시간 정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벌써부터 올 여름에 흘릴 땀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다.

얼굴의 땀은 닦아 낼 수 있지만, 가슴과 등에서 솟아나는 땀은 허리춤을 타고 아래로 흘러내려 사타구니가 온통 땀으로 범벅이 되고 끈적끈적해 지는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찝찝하다. 작년 여름엔 장시간 운전하고 출장 갔다 왔더니 사타구니 주변이 습해지고 가렵다가 습진이 생겨 병원까지 갔으나 치료가 오래 걸려 고생이 막심했다.

등산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지만 하도 땀이 많아 삼가는 편이다. 십분 만 뛰어도 땀이 등줄기를 타고 줄줄 흘러 바짓가랑이가 축축히 젖고 갑자기 아랫도리 움직임이 불편해진다.

바지 속의 신비, 땀 먹는 "루스터 팬츠 2호"가 출시되어 이런 걱정들을 말끔히 없애준다. 분리통풍(分離通風)의 설계와 숨 쉬는 이형단면(異形斷面)섬유의 흡한속건(吸汗速乾)기능이 절묘하게 조화되어 안 입은 듯 편안한 착용감이 신선하다.

"루스터 2호"의 특징은 남근과 고환의 오묘한 돌출과 굴곡을 입체적으로 감싼 튜브와 주머니가 사타구니 피부에서 땀방울을 말끔히 흡수건조 시키는 동시에 공기를 공급한다는 점이다. 시원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정자 생성이 활발해지고 남성에 힘이 솟아 자신감이 살아난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잔뇨 흡수띠와 통풍구를 적용해 상쾌감이 지속되며 위생성도 탁월하다.

제품 원단도 최고급만을 선택했다. Vente x사의 숨쉬는 섬유 DRY-ZONE은 면보다 3~4배 빨리 땀을 흡수하고 통풍이 잘돼 쾌적한 피부상태를 유지시킨다. DRY-ZONE은 단 1초에 땀을 밖으로 배출, 건조시키는 수분감응의 흡한속건(吸汗速乾) 기능 뿐만 아니라 4방향 고신축성(4-way Stretch)을 겸비한 스마트 섬유 원단이다.

소변은 바지지퍼를 내리고 튜브를 꺼낸 뒤 튜브 끝을 검지 손가락으로 약간 확장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루스터 팬츠는 2000년 한국에서, 2005년 미국과 일본에서, 2006년에는 멕시코와 유럽 7개국에서 발명특허권을 획득하여 그 특출한 기능성을 인정 받고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야심 찬 제품이다

기능대비 가격도 저렴해 부담이 적다. 팬츠 1장 가격은 16,000원이며 3장들이 한 세트는 44,000원에 판매한다. 회사 관계자는 "특출한 기능성, 신선한 착용감, 뛰어난 디자인으로 전 세계 기능성 남성 속옷 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점할 것을 확신하며, 덧붙여, 순수 국내생산 섬유로 연구개발, 국내에서 제작 판매하고 있다"며 제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인터넷구매: www.roosterpants.com

문의전화: 1577-2787

대인부동산컨설팅
☎011-625-0510
(쌍촌동 한국병원 옆)

식당, 일식, 횟집, 레스토카페, 고기전문점 적합
· 1층 50평 임대
· 1층 30평 임대
· 봉선동 한국·쌍용아파트 정문앞

학원임대 (1층 25평 봉선동 학원최적지)
· 봉선동 최고요지 (쌍용·한국아파트 정문앞)
· 최고의 주거지역
· 초·중·고 인접

학원 임대
· 봉선동 쌍용·한국아파트 입구
· 대로변 사거리코너
· 5층 103평 보1억 월185만
· 최고 인테리어 시설 비품 포함

토지매도
· 광산구 산정동 하남택지지구뒷편
– 답750평 평당75만원(자연녹지) 8m도로접 6차선계획도로접
· 수완택지지구 D블럭 근린생활지역
– 대70평 평당 650만

상가건물매매
· 봉선동 쌍용아파트 정문앞
– 대지 140평, 건평 200평, 매매가 11억5천(융자4억)신축건물

모텔매매
· 여수시 학동 바닷가앞
– 대지370평 건평 560평 객실 42 융자15억 매매가 25억 월매출 4천만 이상

합동법률경매㈜
(광주지방법원 앞)
☎433-7799 H.P : 011-1770-3328

▶아파트 (단위 만원)

소재지/아파트명	최상/층	m²/평	감정가	최저가
학동(현대)	15/4층	64/76	3억8,000	2억5,200
우산동(현대)	15/11층	34/43	1억2,000	8,400
두암동(무등)	21/15층	25/32	8,500	5,950
운림동(금호벨)	12/6층	25/41	1억8,000	1억2,600
봉선동(무등)	18/2층	25/32	1억1,500	8,050
쌍촌동(우미아)	14/14층	25/34	1억7,000	1억1,900
화정동(금호)	15/3층	49/59	2억3,500	1억6,450
금호동(명지)	16/2층	42/52	1억5,000	1억500
운남동(주석)	20/12층	18/26	5,500	3,850
월계동(우미)	5/4층	23/28	8,000	5,600

▶주택/다가구(원룸)

소재지	대지(㎡)	건물(㎡)	감정가	최저가
일곡동(4층원룸)	300	741	5억2,744	5억2,744
월산동(2층주택)	183	47	1억2,416	88,917
계림동(2층주택)	195	167	1억6,769	1억1,738
삼각동(3층원룸)	191	331	2억1,170	1억4,821
학 동(2층주택)	138	148	1억4,453	8,475
신가동(3층원룸)	284	476	3억5,969	2억5,179
산수동(빌라)	8	19	2,100	1,178

▶상가+주택

소재지/물건내용	대지(㎡)	건물(㎡)	감정가	최저가
산수동오거열	148	174	2억530	1억4,371
운림동(3층)	1472	692	5억8,653	2억6,277
유촌동(3층)	174	280	2억9,943	1억6,768
월산동(2층)	138	158	2억6,872	1억5,048
송정동(2층)	264	631	6억7,410	4억7,187
지산동(4층)	215	494	3억1,760	3억1,760

▶근린시설/상가

소재지/물건내용	대지(㎡)	건물(㎡)	감정가	최저가
충장로2가(상가)	3	6	1억	3,583
화정동롯단지1층	25	74	1억9,200	1억3,440
월계동2층상가	29	103	2억3,000	1억8,100
동림동2층가든	531	492	5억2,150	2억3,363

▶숙박시설(모텔)

소재지	대지(㎡)	건물(㎡)	감정가	최저가
충장로5층모텔	165	491	3억4,851	1억6,516
농성동5층모텔	281	989	7억4,143	4억1,521
농성동6층모텔	405	862	9억1,637	6억4,146
북 동5층모텔	521	901	10억8,343	6억0,475

▶대지/농지/임야/공장

소재지/물건내용	토지(㎡)	감정가	최저가
지산동(유원지)	2097	1억1,114	31,866
양림동	79	3,160	1,415
송정동(근린상업지)	2543	4억8,317	2억7,057
오치동(전)주거지내	1131	3,482	34,825
화순읍내 아파트영풍	647	1억7,469	9,782

법원경매 전문회사
-늘 앞서가는 사람들-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입찰장 앞) 상담전화 : (062) 222-8446

성공적 파트너 / (주) 옥션코리아 무료상담
권리분석, 명도 유치권내역서 및 성립여부, 낙찰가예상분석 예고등기,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가장임차인 등 차별화된 상담을 기다립니다.

▶근린시설/근린상가 상담
대표이사 011-666-8446

소재지/물건개요/면적(㎡)	감정가	최저가
신가동/쌍촌방사무나/대907건5045	40억	18억
호남동/극장/대1068건1156	45억	20억
두암동/점포,사무실/대639건427	6억6100만	3억7050만
농성동/식당,사무실/대330건597	8억3640만	4억6840만
중흥동/사무실/대135건212	2억5500만	1억7900만
대인동/의원,주차장/대863건1999	22억7000만	12억7200만
두암동/점포,사무실/대257건628	4억5640만	3억2000만

▶모텔/원룸 상담
대표이사 011-666-8446

소재지/물건개요/면적(㎡)	감정가	최저가
신안동/모텔/대232건948	7억6720만	5억3700만
주월동/모텔/대699건1583	18억3900만	5억8750만
농성동/모텔/대406/건862	9억1640만	6억4150만
신안동/모텔/대187건480	4억2430만	1억5200만
중흥동/모텔/대301건1123	10억6200만	4억7570만
산수동/다가구/대196건249	2억2000만	1억5400만
두암동/다가구/대177/건182	1억6900만	1억1830만

▶상가주택/주택

소재지/물건개요/면적(㎡)	감정가	최저가
화정동/주택/대167건173.5	1억3200만	7400만
우산동/주택/대237건156.6	1억8350만	1억2845만
쌍촌동/주택/대114건122.5	1억1800만	8260만
산수동/주택/대136건87.4	7250만	5070만
우산동/주택/대145건184.3	1억1760만	8230만
쌍촌동/주택/대132건70.8	7430만	3330만
주월동/주택/대150건145	1억495만	5877만

▶공장

소재지/물건개요/면적(㎡)	감정가	최저가
오선동/아파트형/전425.3대232.3	3억3200만	2억3300만
석곡면/농공단지/대2710건205.8	5억7100만	3억2000만
금성면/농공단지/대4547건1068.8	5억5340만	3억8738만
봉황면/대5336건1454.7	4억	2억2500만
본촌동/대1189건470	4억3900만	3억700만
장성군동화면/대1983건2186.7	7억9000만	4억4300만
오선동/하남공단내/대6265건5915	49억	31억

▶임야/농지

소재지/물건개요/면적 ㎡(평)	감정가	최저가
나주동강면/답/5668(1714)	4250만	2980만
나주문평면/답/3887(1175)	5830만	4100만
곡성석곡면/전/4790(1449)	3520만	2400만
곡성옥과면/답/2980(901.5)	3427만	2400만
명광학수읍/답/7692(2326)	5769만	3700만
나주문평면/과수원/5870(1776)	9500만	5320만
장성북일면/답/1821(550.9)	1640만	1150만
나주봉황면/답/1399(423)	1400만	980만
나주동강면/답/5558.8(1681)	5340만	3740만
나주대기동/과수원/7434(2249)	1억6875만	1억1820만

▶아파트

소재지/물건개요/면적 ㎡(평)	감정가	최저가
치평동/대우금호/79(24)	8300만	5810만
쌍촌동/광명/181(55)	1억6000만	1억1200만
쌍촌동/일신/171(52)	2억2000만	1억5400만
봉선동/라인2차/145(44)	2억	1억4000만
용두동/양산타운/79(24)	6200만	4410만
삼각동/우미/79(24)	6300만	9100만
두암동/무등/105(32)	8500만	5950만
일곡동/동아/122(37)	1억6000만	1억1200만
일곡동/현대/79(24)	7500만	5250만
송정동/상아/105(32)	9000만	6300만